

2024 년 11 월 24 일 “(추수감사예배) 예수님께 배우는 감사”(요 6:11; 15:5)

일상의 평범함 속에서 드리는 예수님의 감사의 의미를 배워보겠습니다.

[1] 예수님의 감사

큰 무리가 모였을 때 말씀으로 천국 교제를 풍성히 나누시고(신 8:3) 또한 이들을 먹이시려는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주심에 평범한 감사의 식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이 육신에도 채워지는 것을 시위(demonstration)하셨습니다. 영적육적으로 풍요한 나라를 백성들 가운데 이루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위한 방아쇠는 예수님의 감사의 식기도였습니다.

[2] 예수님 안에 거하면

사람이 예수님 안에 머물고, 예수님이 그 안에 머무르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요 15:5, 많은 열매 – 삶에 채워지는 부요함]

오병이어 이야기 에서처럼 영적육적 세계의 총체적 하나됨 속에서 부요함(형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감사는 새로운 가치와 풍요가 부여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는 종종 감사하는 것보다 감사를 받는 것이 더 복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고받는 차원을 넘어 존재와 삶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드리는 가운데 날마다 펼쳐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감사를 올릴 때, 삶의 영적육적 부요함을 발견하고 누리게 됩니다.

주님의 평범한 감사의 기도의 교훈을 배워 우리 또한 진실한 감사를 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기도]

1. 이번 주간에, 또는 올 한 해에 주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2. 삶의 부요함은 감사로부터 시작함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또는 육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